

‘공공기관 시즌2’ 42개 기관 유치 선언

김영록 전남지사 “경제 활력·새 성장동력 창출”

낙후지 살리고 국가균형 발전 위해 5대 원칙 제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30개의 공공기관과 12개의 연구기관·출자기업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정부출연기관의 70%,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몰려있고, 인구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반면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80% 넘는 18곳이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발표를 통해 “정부·여당이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게 돼 이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지방의 낙후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5가지 원칙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선 ▲‘행정수도 이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추진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지역별 격차를 고려해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했다.

또 ▲금융기업과 지역 특화산업 관련 기관, 공공기관이 투자한 기업 등 ‘이전 대상 기관 확대’ ▲지역의 과학 연구와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연구기관도 전국에 고르게 배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유치대상기관으로 공공기관 1차 이전과 연계된 19개 기관을 비롯해 지역특화산업을 이끌 수 있는 11개 기관, 12개 공공연구기관 및 이전 기관 투자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타 지역과 협력하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남도는 1차 이전 공공기



김영록전남도지사가 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관과 연계해 전남의 새로운 발전기회를 만들 19개 기관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에너지·화학 분야 5개 기관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농수산업 분야 3개 기관 ▲코레일관광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문화예술관광분야 6개 기관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정보통신 분야 5개 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전남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을 이끌 11개 기관으로는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농해양수산 분야 5개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항공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항공분야 6개 기관 등을 유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공공연구기관 2개소를 비롯해 이전기관 소속 연구기관 7개, 이전기관 투자기업 3개소 등도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동구, 상점가 공영주차장 연말까지 1시간 무료 운영

광주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공영주차장을 연말까지 1시간 무료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충장로와 전자의 거리 공영주차장을 1시간 무료 운영한다. 또 공동과 서석 공영주차장은 2시간 무료, 광주제일고 앞 노상주차장도 전면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각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상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을 1시간 무료 운영한 바 있다.

서구, 코로나19로 온라인 정보화교육 시행

광주 서구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정보화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시대가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비사용자들이 디지털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지난 8일 시작된 온라인 정보화교육은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며 매주 화, 수, 목, 금에 운영된다. 매일 3~4개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은 1과당 16명씩 신청을 받지만 실시간 방송 이후에는 누구나 다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온라인 강의는 비대면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유선 및 유튜브 댓글로 질의응답이 가능케 하는 등 소수 위주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다.

남구, 1호 ‘돌봄 센터’ 효천1지구에 둥지 튼다

광주 남구 관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을 위한 1호 돌봄센터가 효천1지구 구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아파트 단지에 둥지를 튼다.

9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이날 오후 구청정실에서 효천1지구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입주자 대표회와 돌봄 센터 1호점 설치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무상임대 협약을 맺었다.

에코시티 입주자 대표회는 협약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돌봄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 용도로 남아 있는 94.77㎡(29평) 크기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7,000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돌봄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고, 내부 공간도 돌봄 센터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북구,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 나서

광주 북구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북구는 소상공인협회, 전통시장, 전문거리, 상가변영회 등 지역의 주요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각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속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전달하는 한편 참여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구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온라인 홍보와 함께 주요 사거리 28개소에 임대료 인하 동참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코로나19 ‘휴업지원금’ 지원한다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사업장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휴업지원금은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50만원씩 지급된다. 노래연습장·PC방·공연장과 체력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무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이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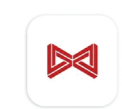
휴업지원금 신청은 10~23일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고, 신청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광산구는, 10~16일 신청한 경우 18일에, 17~23일 접수 사업장은 25일에 각각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임행택기자

“카카오T 잡아라” 호출 앱 ‘광주 리본택시’ 14일 시동

광주택시조합, 전국 최초 스마트폰 앱 개발...독과점 대응



광주리본택시
광주택시사업조합

카카오 모빌리티에 맞서는 ‘광주형 택시 플랫폼’이 14일 정식 출시된다. 택시업계가 자체적으로 만든 모바일 앱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9일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14일부터 스마트폰

앱 서비스 ‘광주 리본 택시’를 본격 운영한다.

조합은 지난 6월 모빌리티 사업자 ‘티원 택시’와 함께 광주 리본 택시 앱을 개발했다. 목적지만 입력해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광주 지역 모바일 전용 앱이다. 교통 서비스의 친절과 혁신을 이어주는 리본이 되겠다는 뜻으로 명명됐다.

택시업계가 모빌리티 사업자와 공

동으로 앱을 만든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광주 지역 택시법인 76곳(3377대) 중 49개사 2000여대가 이 앱을 이용할 계획이다.

조합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 4월부터 광주에서 택시 호출 앱(자동배차)인 ‘카카오 T 블루 택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맹 사업자가 빠르게 늘면서 시장 독점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카카오T 블루택시 가맹 사업자는 지난 4월 300여대로 시범 운영하고

석달 만에 3배 이상 늘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사업자에게 콜 수수료로 수익금의 3.96%를 받고 있는데, 가입 여부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 이견이 속출했다.

조합은 광주 리본 택시 앱의 콜 수수료를 없앴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의 독과점 가능성을 막고, 택시기사들의 선택권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조합은 자체 사업비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유지비를 충당하고,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운영 방식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미희기자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80억원 투입

생활기반 8개·환경문화 7개 추진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사업 8개와 환경문화사업 7개 등 총 15개 사업이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비 72억원 등 총 80억원을 투입해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국비 61억원보다 18%가 증가했다.

세부사업별로 생활기반사업은 도로 확·포장 등 7건, 저수지 보수·보강 1건, 환경문화사업은 누리길 조성 4건, 여가

복지 조성 2건, 경관 조성 1건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쾌적한 휴양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3년부터 지정돼 시행하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한이 많아 생활불편이 있었다.

광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총 211개 사업에 917억원(국비 733억원, 지방비 184억원)을 들여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동취재본부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성의 안전 → 보건책임에 강화되었습니다.
진정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은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어촌진흥재단
Korea Pfl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송로건강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소득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험료부담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